

비나는 사람들

4

2023년 4월 2일 발행 Vol. 2 탐파 새빛교회 이야기



□
□
□



□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실 일이 없으면

너희의 믿음도 헛되고

너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이요

고전

□

□

□
□
□
□
□
□
□

김섭리 목사의 신앙 컬럼(2)

타인의 눈물이 내 눈에서 흐를 때

청년 의사 안수현, 아마도 한 번쯤 그 이름을 들어 보셨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1972 년 생으로 33 세의 짧은 인생을 살다 간 그의 뒷모습은 수많은 사람들의 삶을 회복시키고 절망에 빠진 이에게 새 힘을 주었습니다. 의학계의 뛰어난 권위자도 아니었고, 학자도 아니었습니다. 평범한 군위관으로 재직하다가 유행성 출혈열로 갑자기 주님의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4000 명이 넘는 조문객들이 그의 빈소를 찾았습니다. 그동안 그가 베푼 사랑을 받았던 수많은 사람들이 잊지 않고 함께 울어주었습니다. 그가 늘 바랐던 것처럼 짧은 시간동안 많은 사람들에게 사랑의 스티그마(흔적)를 남기고 떠났습니다.

그 후에 그 청년을 그리워하는 사람들이 모여 그 삶의 흔적을 “그 청년 바보의사”라는 책으로 널리



목사님 부부

알리게 되었습니다. 그는 에이즈에 걸렸던 동성애자 후배가 자살을 하려고 할 때 친구가 되어 주었고, 죄책감을 벗어나 전도사의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도왔습니다.

자존감이 약해 늘 위축되기만 했던 친구에게는 “너는 최고야, 너는 가능성이 있어”라는 말로 위로해 주었습니다. 돈이 없어 검사를 받지 못하는 조손족 할아버지의 검사비를 대신 내 주고, 집과 교회가 멀어 차를 타기 위해 예배 중간에 나가야 하는 후배의 운전사 역할을 해 주기도 했습니다.

손에는 늘 책과 찬양 테이프를 가지고 다니며 선물해 주었고, 밤이면 병원을 돌며 말은 환자들을 붙잡고 조용히 기도해 주었습니다. 소망이 없다고 생각하며 실의에 빠진 암 환자들을 찾아가 말동무가 되어 주기도 했습니다. 그를 통해 하나님의 사랑과 위로를 경험한 사람들, 그의 모습을 보고 도전을 받았던 동료들과 제자들은 그를 닮은 삶으로 또 다른 사람들에게 본을 보이고 있습니다.

한 청년의 죽음이라는 아픈 기억을 넘어서서 치유와 희망이 자라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그가 타인을 위해 흘렸던 눈물은 누군가의 뺨에 흐르는 기쁨의 눈물이 되었습니다. 죽은 자와 산 자를 하나로 만드는 눈물, 고통 받는 자와 그 고통을 바라보며 아파하는 자를 하나로 만드는 눈물입니다.

해마다 4 월이 오면 고난주간과 부활주일을 맞이합니다. 올해는 이 그리스도의 눈물을 더 깊이

묵상하게 됩니다. 이 땅에 우리와 같은 모습으로 오셨던 하나님은 우리가 흘린 그 눈물을 같이 흘리셨고, 인간의 고통을 그의 몸으로 경험하셨습니다. 나사로의 죽음 앞에서 울고 있는 사람들을 보시고 심령에 비통히 여기시고 함께 눈물을 흘리셨습니다. 그리스도의 눈에서 우리의 눈물이 흘렀을 때, 우리의 역사와 아픔에 대한 하나님의 공감과 내주하심(쉐키나)이 이루어 졌습니다. 그리스도가 흘리신 십자가의 고통의 눈물로 인해 인간의 눈에 비로소 거룩한 눈물이 흐르게 되었을 때, 우리는 새로운 생명을 얻게 되었습니다.¹

주님의 눈물은 그렇게 우리들을 기쁨의 눈물로 바꾸셨습니다. 이제 우리도 그 주님의 눈물을 흘려야 합니다. 경제적 궁핍과 정신적 피로, 외로움, 소외, 지나친 경쟁, 타인의 시선에 영향을 받으며 살아가는 우리의 이웃, 어둠과 고통으로 가득한 사회, 빛의

¹ 박종환 『예배미학: 인간의 몸, 하나님의 아름다움』 (서울: 동연, 2014), 12.

역할을 감당하지 못하는 교회를 바라보며 이제 우리도 그 눈물을 흘려야 합니다. 타인의 눈물이 내 눈에서 흐르게 될 때 우리는 그와 하나가 됩니다. 함께 흘리는 고통의 눈물이 가진 신비입니다. 이제 그 신비를 우리의 삶에서

체험할 때가 되었습니다. 바로 지금 옆에 있는 사람의 눈물을 내 눈에 흐르게 할 사람을 주님은 찾고 계십니다.

준비가 되셨습니까?



예수께서 눈물을 흘리시더라 (요 11:35)

교회 소식

친교실 공사

3 월 19 일과 26 일 건물관리팀(팀장: 서오식 집사)에서 친교실과 복도의 베이스보드를 교체했다. 특별히, 교체 작업을 한 성도들을 위해서 19 일에는 김종월·최성미 집사 부부가, 26 일에는 최대영·박윤정 집사 부부가 저녁을 준비해서 대접했다.



NCC 어린이 합창단



New Light Church 어린이 합창단 19 명은 부활절을 위하여 1 월 15 일부터 매주일 킹덤존 예배실에서 맹연습을 하고있다. 고하정 자매의 지도하에 부활절 특송으로 부를 노래는 "이 작은 나의 빛"과 "It's a Beautiful Day"이다.

교회 사역팀 소개

2023년 중점사역인 3개 사역원에 속한 25개 사역팀에 대한 소개입니다. 매월 각 사역원에서 한 팀씩 총 3개의 팀에 대해 알려드립니다.

새빛교회 팀사역은 예수님과 사도바울의 팀사역을 그 모델로 삼습니다. 팀사역은 겸손과 섬김의 리더십으로 성숙해 갈 것입니다. 수직적 관계가 아니라 자유함 속에서 서로 존중하며, 같은 비전과 핵심가치를 추구하며 다양함 속에서 하나가 될 것입니다.

소개되는 팀사역에 관심이 있는 성도는 팀장에게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서팀 (공동체/교육 사역원)

새빛교회에서 가장 편안하고 휴식 같은 공간, 도서부입니다. 도서부는 친교실 안에 있는 오디오 시스템 바로 옆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도서부에는 신앙 성장과 기도, 간증 등 대략 1,000여권의 신앙관련 서적이 구비되어 있습니다. 신앙적인 질문이나 책을 통해 해답을 찾고 싶으신 분들은 도서부에 들러 책을 찾아볼 수 있고 또 빌려갈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신앙에 관련해 평소에 읽고 싶었던 책, 이슈가 되었던 책을 주문·신청하시면 됩니다. 이 책들은 두 달에 한 번 신간서적을 통해 소개합니다.

하나님을 진심으로 찾고 갈망하는 자에게 어떤 방법으로든 응답하시는 하나님, 연약한 자의 신음을 외면치 않고 책을 통해 만나주신 하나님을 기억합니다. 하나님에 대한 아름다운 기억과 경험을 책을 통해 쌓아가면 좋겠습니다.

도서팀은 도서 및 QT 북 매일성경 구입 이외에도 독서 모임과 성결구절 암송, 문학의 밤 등 여러 행사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는 C.S. 루이스의 『스쿠르테이프의 편지』라는 책을 선정하여 독서모임을 하고 있습니다.

독서모임은 도서팀뿐 아니라 책에 관심 있는 모든 분들에게 열려있습니다. 참여를 원하시는 분은 언제든지 환영합니다. 그리고 중요 성경구절 암송을 선정하여 성도들이 말씀을 자주 접할 수 있는 환경이 되도록 준비하고 있습니다.



도서팀의 팀장은 임상희 집사이며 팀원으로 임형주 집사, 박혜영 집사, 최은영 집사, 이향림 집사, 한연희 집사, 김제숙 집사가 있습니다.

방송/미디어팀 (예배/찬양 사역원)

디지털 시대를 맞이하여 효과적으로 복음을 전달하고 교회를 홍보하는 팀입니다. 온 성도들이 하나 되는 교회, 최상의 효율적인 예배를 드리며 바른 기독교 문화를 창출함을 목적으로 합니다. 방송을 위한 obs 운영, 예배를 위한 ppt 제작, 카메라와 비디오 그리고 사운드 시스템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또한 교회 홈페이지 관리와 유튜브 제작과 운영도 하고 있습니다.

예배를 위한 방송 기획과 제작은 많은 노력과 시간을 필요로 하는 작업입니다. 교회 홈페이지와 유튜브에 자주 찾아와 주셔서 교회 사역이 현장에서 빛이 날 수 있도록 많은 관심과 격려를 부탁드립니다.



팀장인 이항림 집사를 비롯하여 김근 장로, 유상호 집사, 김종월 집사, 최대영 집사, 이수민 형제, 신은녕 집사, 박윤정 집사, 이재정 집사가 보이지 않는 곳에서 묵묵히 수고를 하고 있습니다.

평소에 방송미디어에 관심이 있는 성도들의 동참을 바랍니다.

뮤지컬 사역팀 (선교/행정 사역원)

뮤지컬팀은 이재정 집사가 팀장으로 팀원은 안지연 자매, 김예나 자매, 고하정 자매, 그리고 Kindergartener 부터 7 학년까지 아이들까지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현재 주된 사역은 뮤지컬 공연과 합창 공연입니다. 김예나 자매가 책임자로 있는 뮤지컬팀은 작년 Thanksgiving day 와 Christmas 에 뮤지컬 공연을 했습니다. 고하정 자매가 담당하고 있는 합창단은 올해 부활절 공연을 목표로 연습하고 있습니다. 5 월에는 탬파베이 지역 어린이도 포함하여 새로운 단원을 모집할 계획입니다.

뮤지컬과 합창 사역은 하나님께는 영광을, 공연을 즐기는 사람들에게는 은혜가 될 것입니다. 저희는 아이들과 청소년들이 이 공연 경험을 통해 하나님을

알아가는 지식과 찬양의 기쁨을 누리며 온전한 크리스천으로 성장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지원할 것입니다.



팀장인 이재정 집사는 환경 관련 Business 에 종사하고 있으며, 교회에서는 주일학교 총무, 뮤지컬팀 팀장, 관리부와 방송미디어 팀에서 봉사하고 있습니다. 가족으로는 배우자 이항림 집사와 대학생인 두 딸이 있습니다.



나의 간증

새벽 4 시, 날마다 새로운 주님의 사랑

사순절을 지내며 목사님께서 아침마다 올려주시는 주님의 깃세마네를 따르는 믿음의 선진들의 깃세마네를 읽으며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데 필수불가결한 것은 기도임을 봅니다. 주님과 독대하는 시간, 나를 부인하는 시간인 기도에 대해 저에게 베푸신 주님의 은혜를 나누고자합니다.

1983년 저희 아이들이 유치원에 들어가면서 직장생활을 시작했습니다. 기도와 묵상 시간을 가지려면 4시에 일어나야 했는데 남편이 깰까봐 알람을 사용 못하고 주님께 기도를 드렸습니다. 신실하신 주님은 저를 깨워주셨고 두 주도 못 가서 저는 새벽 4시의 사람이 되었습니다. 더욱 놀라운 것은 제가 몇 시에 잠자리에 들 건 일어나는 시간은 항상 같았습니다.

2008년 교회 부흥회로 며칠 동안 잠이 많이 부족해서 단잠을 자고 있던 어느 월요일 새벽에 “혜영아”라고 부르시는 주님의 음성에 깨었습니다. 저는 일어나 이렇게 세심히 저를 붙들어 주시며 찾아주시는 신실한 주님의 사랑에 너무 감격해 주님께 여쭙었습니다. “주님, 어떻게 이렇게까지 저를 사랑하십니까?” 곧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너는 내 피 값이다.”라고 대답해 주셨습니다.

물론 저는 주님이 피로 저의 죄를 속량해 주시고 자녀 삼으셨다는 것을 잘 알고 믿고 있습니다. 그러나 일상생활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때마다 부족하고 연약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가릴 때가 많은 제 모습으로 늘 움츠러들기 때문에 주님께 어떻게 저를 이렇게까지 사랑해 주시냐고 물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그때부터 저는 다시는 저를 사랑하시는 주님의 사랑에 대해 질문하지 않습니다.

성경에 나오는 위대한 믿음의 선진들에게 하셨듯이 작고도 작은 저의 이름을 불러주시는 편애하지 않으시는 주님의 놀라운 그 사랑!!!!

제가 일 초 후에 무슨 일을 할 지, 얼마나 못한 일을 할 지 다 아시는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 제 모습 이대로 받으시고, 저를 위하여 십자가에 생명을 내어주신 주님의 그 사랑으로 인해 새벽 4 시 주님과의 만남이 지금도 계속되고 있음을 감사드립니다. 저의 모든

것이 되시고 저의 왕 되신 주님의 뜻을 따라 살기를 간절히 원하며 오늘도 기도합니다.

존귀와 영광과 찬송을 받기에 합당하신 삼위일체 하나님의 성호를 높이 높이 찬양합니다.

중보사역팀 정혜영 권사



어떻게 하나님을 만나게 되었나요? 자신이 만난 하나님을 다른 분과 같이 나누기를 원하시는 성도는 문서사역팀 광봉선 집사에게 문의해 주세요.

성도 소개

새빛교회 담임목사이신 김섭리 목사님에 대한 소개입니다.

1. 목사님과 목사님 가정을 간단히 소개해 주세요.

김섭리 목사입니다. 1968 년 생이며, LA 에서 20 년 간 Preschool 에서 일했던 아내 김미나와 언어치료사인 딸 예나 그리고 10 학년인 아들 건희가 있습니다.



2. 목회를 하신 계기는?

LA 한인침례교회(남가주 새누리)에서 음악감독으로 사역을 하다가 담임목사님의 권유로 신학대학원에서 목회학을 공부하게 되었습니다. 목회자의 아들로 자라왔지만 목회자 보다는 평신도 사역자가 되기를 원했는데, 신학을 하면서 자연스럽게 목회의 길로 인도하심을 받게 되었습니다.

3. 탬파 새빛교회 목회는 언제부터?

딸이 먼저 탬파로 대학원 공부를 오게 되면서 2021 년 8 월 휴가차 들렀는데, 마침 새빛교회 2 대 송호철 목사님이 사임을 한 다음 주였습니다. 그래서 설교자로 부탁을 받고 설교를 한 후에 청빙을 받게 되었습니다.

4. 새빛교회에서 목회는 어떠신지?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시는 것은?

한 걸음씩 배우며 걸어가고 있습니다. 부족한 목회자에게 마음을 나눠주시며 가족처럼 여겨주시는 성도님들과 함께 행복한 목회를 하고 있습니다. 목회에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은 “모든 성도들이 진정한 환대를 통해 공의와 살롱과 토브가 회복되는 하나님 나라를 살아가는 것”입니다.

5. 미국에는 언제, 어떤 계기로 오시게 되었는지?

대학 때 알게 되었던 아내가 1990 년에 먼저 미국에 이민을 오게 되었는데, 그 이후로 편지로 교제하다가 1995 년 결혼을 하고 한국에서 1 년 6 개월을 살다가 함께 이민을 오게 되었습니다.

6. 가장 즐겨하시는 것은?

- 1) 자동차로 하는 장거리 여행과 아름다운 자연 속 인물사진 찍기
- 2) 독서 삼매경

7. 텀파에서 사시면서 좋은 점들은?

늘 푸른 나무, 구름이 펼쳐져 있는 하늘, 에머랄드 빛 바다, 쾌적한 겨울 날씨, 봄비지 않는 도로, 쫓기지 않는 시간, 순박한 사람들, 무엇보다도 새빛교회의 성도들이 있습니다.

8. 가정의 가훈 또는 삶 속에서 중요하게 품고 계신 말씀은?

영어의 Integrity 라는 단어, 한국어로는 한 단어로 번역하기 힘들지만, 성실, 정직, 겸손, 성숙 등의 의미가 함축됨. 늘 자신의 integrity 를 성찰하며 하나님의 뜻을 매 순간 구하는 사람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9. 내 삶 속에서 가장 기뻐할 때와 가장 슬펐을 때는?

- 1) 기뻐할 때: - 아버님이 반대하시던 음대에 합격했을 때
- 5 년간 편지로만 장거리 연애하다가 마침내 결혼했을 때
- 첫 째 예나와, 둘 째 건희를 선물로 주셨을 때
- 2) 슬펐을 때: - 불교 신자였던 절친의 교통사고 사망(1987 년),
- 세월호 침몰을 지켜보던 순간 (2014 년)

10. 좋아하는 음식은?

스시(사시미), 감자탕, 신림동 철판 순대볶음

11. 가장 좋아하는 찬양, 성경구절은?

1) 찬양: Above all,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은 너를 만드신 분

2) 성경구절: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으시되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고 또 사람들에게는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느니라 그러나 하나님이 하시는 일의 시종을 사람으로 측량할 수 없게 하셨도다 (전도서 3:11)*

12. 5년 이후의 나의 모습은?

지금과 많이 다르지 않을 것 같습니다. 분명한 것은 주님의 은혜 안에서, 지금이 가장 행복하고, 앞으로는 더욱 행복해 질 것이라는 것입니다.

13. 추천하고 싶은 책이나 영화는?

1) 책: 깊은 사유를 즐겨하는 사람에게는 쇠얀 키르케고르의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카리스 아카데미, 2023), 쉽게 읽을 수 있는 책으로는 레너드 스윗의 『태블릿에서 테이블로』(예수전도단, 2014)

2) 영화: Babette's Feast(1987), Life is Beautiful(1997), About Time(2013)

14. 모든 성도들에게 한 말씀

크로노스의 시간 속에서 카이로스의 시간을 함께 보내는 성도님들로 인해 늘 감사하고 행복합니다. 좀 더디더라도, 그리스도가 보여 주신 온전한 미래적 하나님의 나라를 함께 소망하며, 현재적 하나님의 나라에서 다 같이 춤추며, 기쁨으로 함께 걸어가는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길 진심으로 바라고 기도합니다.

15. 새빛교회에 바라는 것은?

모두가 그리스도의 능력을 체험하고, 인격과 삶의 방식이 온전히 회복될 뿐 아니라, 지역과 세상을 그리스도의 문화로 변화시킬 수 있는 교회, 하나님의 선교에 참여하며,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는 짜데카, 샬롬, 토브를 이루는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회개의 기도

함께 드리는 사순절 기도문



오 주님,
우리의 마음을 엽니다.

우리의 상한 심령을 주님께 드립니다.

오!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선하심을 따라

우리에게 사랑을 베풀어 주시고

풍성한 사랑하심을 따라 우리의 죄를 제거하소서.

주님의 말할 수 없는 사랑으로

우리가 지은 죄에서 자유케 하시고,

우리가 받아 마땅한 징벌로 부터 구해주소서.

오! 모든 어둠의 행실에서 구하시고

영과 육의 모든 더러움을 씻기소서.

그리하여 때가 이를 때

정결한 마음과 생각으로

오직 한 분이신 참되신 하나님을 따르게 하소서.

- 존 웨슬리

고난주간

부활절(復活節, Easter, Resurrection Day)은 십자가에서 사망한 예수가 3일 만에 부활하신 것을 기념하는, 신구교를 막론하고 기독교의 가장 중요한 절기다. 부활절 전 일주일(은 예수의 지상생애 마지막 주간으로, 그의 수난을 기념하여 고난주간(Passion Week)이라 한다.

루터(M. Luther)의 종교개혁으로 고난주간에 행해지던 로마 가톨릭 의식들은 대부분 폐지되었다가 스위스 종교개혁자 쾰링글리(U. Zwingli)의 영향 아래 부분적으로 회복되었다. 오늘날에는 교파에 따라 다양하게 지켜진다.

고난주간의 명칭과 의미는 다음과 같다.

종려주일(Palm Sunday)은 부활절 직전의 주일이다. 예수님이 예루살렘으로 승리의 입성을 축하하는 주일(마 21:1-11, 막 11:1-10, 눅 19:28-40, 요 12:12-19)이며, 고난주일이라 한다. 성경에서 종려나무는 의와 아름다움, 승리 등을 상징한다.

성목요일(Holy Thursday)은 예수가 돌아가시기 전날로, 최후의 만찬이 있었다. 세족목요일(Maundy Thursday)라고도 하여, 서로의 발을 씻겨주는 세족례를 하거나, 세족례 대신 손을 씻는 세수례를 하기도 한다. 세족례는 스스로를 낮춤으로 높아지는 기독교 신앙의 모순이자 진리를 잘 체화하는 행사라 할 수 있다.

성금요일(Holly Friday, Good Friday)은 예수의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날이다. 세상을 위하여 자신을 희생하신 예수의 고난을 묵상하며 금식을 하거나 성금요일 예배를 통해 성찬식을 드림으로써 예수의 몸과 피를 먹고 마시는 예식을 행한다.

고난주간 예수의 행적

일요일 - 개선의 날

예수는 아직 아무도 태워본 적이 없는 나귀 새끼를 타고 겸손하신 평화의 왕으로 예루살렘에 입성하신다. 백성들은 예수를 정치적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하실 메시아로 믿어 "호산나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라고 찬송하며 그를 영접한다. 그러나 예수는 장차 심판으로 무너질 성전을 보시며 눈물을 흘리신다. (눅 19:28-40, 마 21:1-11, 요 12:12-19)

월요일 - 권위의 날

예수는 성전 이방인의 뜰에서 장사하는 자들을 내쫓아 성전을 정결하게 하시고 소경들과 저는 자들을 고쳐 주신다. 그리고 성전에서 가르치시니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 백성의 두목들이 그를 죽이려 모의하기 시작한다. (마 21:18-19, 막 11:12-14, 마 21:12-17, 눅 19:45-48)

화요일 - 변론의 날

성전에서 백성들을 가르치시며 서기관과 대제사장, 바리새인들의 간교한 질문들에 답변하시며 성전의 파괴와 대환란, 종말의 징조들, 제자들의 박해받을 일과 재림 등을 예언하시며 "항상 기도하고 깨어있으라"고 당부하신다. (마 21:23-27, 눅 20:1-8, 마 21:28-32, 마 21:33-46, 마 22:1-14, 마 22:41, 눅 20:41-44, 막 13 장, 마 26:14-16, 막 14:10-11)

수요일 - 음모의 날

가롯 유다가 유대인에게 예수를 팔기로 결심한다. (마 26:3-5, 막 14:1-2, 눅 22:1-2)

목요일 - 준비의 날

유월절 저녁이다. 예수는 어느 가정 다락방에서 최후의 만찬을 하신다. 서로 누가 더 크냐는 논쟁을 하는 제자들의 발을 씻어주며 서로 섬겨야 할 것을 친히 보여주시고 배반자 유다를 지적하시고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을 말씀하신다. 그리고 베드로가 세 번 예수를 부인할 것을 말씀하신다. 그날 밤 겟세마네 동산에서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기도하시고 모든 인류의 죄의 잔을 받으신다. 유다가 무리와 함께 올라와 예수를 체포, 대제사장에게 넘긴다. (마 26:17-25, 요 13:1-7, 마 26:26-29, 요 17 장)

금요일 - 수난의 날

빌라도의 법정에서 재판을 받는다. 유대인들의 요구로 바라바는 놓임을 받고 대신 예수는 사형선고를 받아 그날로 십자가에 달려 장사되신다. (마 26:57-58, 눅 22:54-55, 마 27:21-31, 요 18:28-38, 막 15:20-46)



토요일 - 예비의 날

경비병이 무덤을 지킨다. (마 27:62-66)

일요일 - 부활의 날

새벽, 부활하시다! 막달라 마리아와 베드로와 엠마오 도상의 두 제자에게, 또 갈릴리 바다 등에서 여러 제자에게 나타나 예언하신대로 다시 살아나셨음을 보이시고 증인의 사명을 주신 후 승천하신다. (마 28:1-7, 요 22:11-17) (출처: 김필곤 목사, 열린교회)

부활절 달걀의 유래



부활절 달걀(Osterei, œufs de Pâques, Easter eggs)의 유래는 부활절의 명칭인 “이스터(Easter)”에서 찾아볼 수 있다. 이스터는 이교에서 숭배했던 여신의 영어식 이름으로, 봄과 풍요 그리고 다산을 관장하는 신으로 각 나라에서 다양한 이름으로 불렸다.

BC 3000 년경, 메소포타미아 지역에서 ‘수메르’라는 민족은 ‘이난나(Inanna)’라는 풍요와 다산의 여신을 섬겼다. 시간이 흐르며 이난나 숭배 사상은 수메르 근방의 여러 고대국가들로 퍼져나가며 이난나의 이름은 다양하게 변형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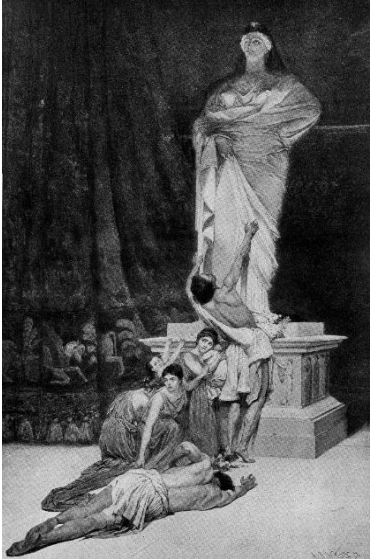
『두란노 성경사전』과 『성서대백과 사전』에 의하면 이베니계인들은 아스타르테(Astarte), 바벨론 사람들은 이슈타르(Ishtar), 그리스인들은 아프로디테(Aphrodite), 이집트 사람들은 이시스(Isis), 로마사람들은 비너스(Venus)로 불렸다. 히브리인에게는 아스다룻(Ashtoreth)으로 성경에도 등장한다.

사무엘이 이스라엘 온 족속에게 말하여 이르되 만일 너희가 전심으로 여호와께 돌아오려거든 이방 신들과 아스다룻을 너희 중에서 제거하고 너희 마음을 여호와께로 향하여 그만을 섬기라 그리하면 너희를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건져내시리라 (사무엘상 7:3)

고대 신화에 따르면 이 여신은 ‘달걀’에서 태어났다. 난생설화(卵生說話)는 알에서 태어난 영웅을 소재로 한 신화로, 한국 신화하면 떠오르는 건국 신화의 동명왕, 탈해왕, 박혁거세, 수로왕 등이 있다.

독일 작가 페터 제발트는 『가톨릭에 관한 상식사전』에서 “달걀은 거의 모든 문화와 종교에서 다산과 부활을 상징한다. 기독교에서 이 상징성이 더 강화되었다. 달걀은 훼손되지 않은 껍데기 때문에 죽음을 이겨낸 예수의 부활을 가리킨다.”고 밝혔다. (출처: pasteve.com)

예전부터 사순절 기간 동안 가톨릭 신자나 수도원에서는 절제의 정신으로 고기나 달걀을 먹지 않는 금욕생활을 하다가 부활절 토요일 종소리가 울릴 때 처음으로 오믈렛이나 달걀을 먹는 기쁨을 누렸다. 이 계절에는 달걀이 귀해 부유층이나 먹을 수 있었고, 대부분의 사람들은 부활절 아침 식사 때에야 비로소 달걀 요리를 먹을 수 있었다. 여기에 부활의 기쁨과 함께 이웃과 달걀을 선물로 주고받는 풍습이 자연스럽게 생겨난 것이다. (출처: 두산백과)



아스다롯에게 경배하는 사람들
출처: Wikimedia Commons

이렇듯 여러 자료에 따르면 부활절 달걀은 이교의 관습으로 기독교가 유럽에 전파되면서 생명의 탄생, 재생의 의미가 부활과 결합하여 부활절에 사용되었다.



부활절 기도

사랑의 주님,

어둠의 장막이 가장 밝은 빛으로 변했습니다.

두려움의 끝이 아름다운 시작이 되었습니다.

희망 앞에서 사라져가는 절망을 떨리는 마음으로 기억합니다.

영원한 생명으로 죽음의 저주를 물리쳤습니다.

우리의 죄 때문에 기꺼이 찢리신 당신의 마음을 기억합니다.

죽음의 무덤에서 일어나심을 넘치는 기쁨으로 노래합니다.

천국의 약속과 영생으로의 초대에 감사드립니다.

아멘

-줄리 팔머



애니 암스트롱 선교헌금

남침례교는 전통적으로 부활절에는 애니 암스트롱 선교헌금(Annie Armstrong Easter Offering)을, 성탄절에는 라티문 선교헌금(Lottie Moon Christmas Offering)을 드려 선교를 지원하고 있다.

애니 암스트롱 부활절 헌금은 애니 암스트롱의 업적을 기리기 위한 것이다. 이 헌금은 미국 전역 2,400 명 이상의 선교사 가족을 훈련하고 지원하고, 파송하는데 사용되며, 관리자를 거치지 않고 선교사에게 직접 전달된다. (출처: WMU.com)

애니 암스트롱(1850-1938)은 남침례교 역사상 가장 잘 알려진 이름 중 하나다. 볼티모어 침례교 가정에서 태어난 애니는 어머니와 함께 기독교 봉사에 참여했다. 교회 개척을 도왔을 뿐만 아니라 고아, 아프리카계 미국인, 아메리카 원주민, 중국계 이민자, 궁핍한 여성 등과 같은 가난한 사람들에게 봉사하고 사회 정의를 옹호하는 데 열정적이었다.



1888 년 애니는 여성선교연맹인 Woman's Missionary Union(WMU) 창설을 주도하였다. WMU 의 수장으로 재임하는 동안 급여를 받지 않았으며, 기도와 희생적인 헌금을 통해 선교 사업을 지원했다. 1895 년, 남침례교에서 연례 부활절 선교 헌금이 제정된 것은 애니와 WMU 여성들의 노력 덕분이었다. 1934 년에 이 헌금은 애니 암스트롱 부활절 헌금으로 이름이 바뀌게 되었다.

나는 신이다: 신이 배신한 사람들

스스로를 예언자라고 천명한 네 명의 “메시아”

MBC 에서 제작하고 넷플릭스를 통해 2023 년 3 월 3 일 전 세계에 공개된 다큐멘터리 시리즈로, 방영 후 큰 파장이 일고 있다. 이 다큐의 주제는 대한민국의 사이비 종교에 관한 것이다. 스스로를 신이라 부르며 대한민국을 뒤흔든 4 개의 사이비 종교의 만행과 이를 폭로하는 사람들의 인터뷰로 JMS, 오대양, 아가동산과 만민중앙교회를 8 부에 걸쳐 담았다.



이 다큐를 본 사람들은 “충격적”, “믿기 힘들다”, “화가 치민다”, “진짜 열 불나고 속 터지고 너무 화나고”, “정말로?”, “화병 날 것 같아서”, “보는 내내 역겹고 괴로웠다”, “갑갑할 따름이다” 등의 반응이다.

사이비 종교를 다룬 만큼 매 편마다 시작 전 경고문구가 나올 만큼 수위가 높다. 피해자들의 구체적인 진술은 듣기 힘든 것도 있어서 보기 전에 마음의 준비를 할 필요가 있다.

그 때에 사람이 너희에게 말하되 보라 그리스도가 여기 있다 혹은 저기 있다 하여도 믿지 말라 거짓 그리스도들과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 큰 표적과 기사를 보여 할 수만 있으면 택하신 자들도 미혹하리라 (마 23-24)

사이비 종교와 이단

흔히 사이비 종교와 이단을 혼용해서 사용하지만, 종교라는 잣대로 볼 때 이들은 완전히 다른 성격을 가진 단체다.

이단(Heresy)은 주류 종교와 배치되는 교리를 가진 분파다. 성경과 교리의 왜곡과 오류에 대한 문제로, 성경은 이를 “다른 복음 (갈 1:7)”이라고 한다. 이단은 교회사 속에서 치열한 논의를 통해 정립된 정통신학의 범주를 벗어난 주장을 한다. 단순히 성경을 잘못 해석해서 이단이라고 정죄하지는 않는다. 예수님 외에 다른 구원자가 있다고 하거나, 종말의 시와 때를 정한 시한부 종말론을 주장하거나, 삼위일체 하나님을 부정하는 등 기독교의 핵심 교리와 믿음을 왜곡할 때 이단이라고 정의한다.

교사성어		
似	而	非
답을 사	말 이을 이	아닐, 비방할 비

<출처: 나무위키>

사이비의 사전적 의미는 “겉으로 보기엔 비슷한 듯하지만 근본적으로 아주 다른 것”이다. 사이비는 사회적 용어로 사이비 의사, 사이비 기자 등 사회 전반에서 다양하게 사용된다.

사이비 종교란 보기에는 종교 같지만 본질은 종교가 아닌, 종교를 빙자한 사기 집단으로 종교의 탈을 쓰고 온갖 범죄를 저지르는 범죄조직이다. 영어로도 광신적인 의미의 “cult” 혹은 허위라는 의미의 “pseudo”로 표현한다. (출처: 『이단백서』 바른미디어)

『이단백서』 저자인 조민을 목사는 사이비는 우리 모두의 문제로 “잘못된 교리를 분별할 수 있는 분별능력이 있는지 자기 성찰하는 자세가 중요하다”고 강조한다.

책 추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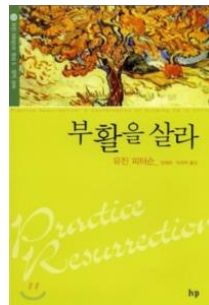
부활을 살라

이 책은 에베소서를 강해하며 영적성장을 설명한 책이다. 부활은 현실이고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살아가야 할 현실로 이어져야 한다는 주제를 다룬다. 책에는 부활을 받아들이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기도하며 평화와 정의를 위해 일하는 등, 여러 방법으로 부활의 삶을 만들어 나가는 방법들이 소개된다.

지은이 유진 피터슨은 미국 메릴랜드 주에 있는 Christ Our King 장로교회에서 30 년간 목회자로 섬겼고, 현재는 리젠트 칼리지의 영성 신학 명예교수로 있으면서 미국 몬태나에서 저술 활동을 하고 있다. 그는 영성을 오늘의 언어와 이야기로 풀어내는 탁월한 능력이 있으며 절망하여 주저앉은 사역자들은 다시 일으켜 세우는 '목회자들의 목회자'이기도 하다.

에베소와 에베소의 사람들, 하나님의 복, 교회의 창조 그리고 행동하는 교회에 대해 서술하며 우리 삶 속의 부활을 통해 현실에서 멀어진 관념적인 신앙보다는 실재하시는 하나님과 친밀해지고 구체적인 교회공동체로 성장하는 신앙을 권장한다. 성경 중에서 에베소서는 교회만의 독특한 정체성을 규정하는 책이다. (글: 도서부 박혜영 집사)

원제: Practice Resurrection
출판사: IVP
지은이: 유진 피터슨
옮긴이: 양혜원, 박세혁
출판일: 2010 년 9 월 1 일
쪽수: 456 쪽
(도서부 소장 도서)



알려드립니다

종려주일: 4 월 2 일은 예수가 십자가의 죽음을 위하여 예루살렘에 입성한 날을 기념하기 위한 종려주일입니다. 1/4 분기 새가족 환영회가 있습니다.

고난주간 특별 저녁 기도회: 예수가 부활하기 전까지 1 주간을 지키는 절기인 고난주간 기도회가 4 월 3 일부터 7 일까지 매일 7:30 분부터 있습니다. 동시통역도 제공됩니다.

성찬예식: 4 월 7 일에 예수의 십자가 처형과 죽음을 기념하는 성금요일에 성찬예식이 있습니다.

부활주일: 4 월 9 일 부활주일 가족예배로 드립니다. 1 부 예배는 없습니다.

침례식: 4 월 9 일 부활주일에 침례 대상자 교육을 마친 성도들에게 침례식을 거행합니다.

정기 제직회: 4 월 16 일에 2/4 분기 정기 제직회가 열립니다.

자녀들과 함께 하는 금요찬양기도회: 4 월부터 매월 세째주 금요일(4/21)에 자녀들과 함께 드리는 금요찬양기도회를 시작합니다.

헌아식 대상자 교육: 아이를 주신 것에 감사하는 의미와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어린 자녀를 하나님의 뜻을 좇아 잘 키우겠다고 서약하는 헌아식 대상자 교육이 4 월 30 일에 있습니다

Vacation Bible School(VBS): 5 월 31 일부터 6 월 2 일까지 3 일 동안 “Twist & Turns”라는 주제로 열리는 주일학교 등록을 받습니다. 시간은 오전 9 시부터 오후 2 시까지이며, 대상은 1 학년에서 6 학년으로 올라가는 학생입니다.

SEED Youth 수련회: 7 월 24-26 일까지 Kissimmee 에서 열릴 예정입니다.

지역 행사 소식

Tampa Bay Blues Festival

날짜: 4 월 14-16 일

입장료: \$60+

장소: 701 Bay shore Dr. NE St. Petersburg

준비물: 담요, 의자, 어린이(12 세 이하 무료),
개인 카메라



BBQ Love Festival

날짜: 4 월 29 일 토요일

시간: 11 시 ~ 6 시

입장료: \$75+

장소: Perry Harvey Sr. Park, 1000 East
Harrison Street, Tampa



PhilFest 2023

날짜: 3 월 31 ~ 4 월 2 일

시간: 금: 5pm~11pm, 토: 10am~11pm, 일: 10am~6pm

입장료: \$10 (일부 아울렛이나 Bayanihan Arts and Events Center: \$8)

5 살 미만과 신분증을 지참한 military veterans 는 무료

장소: Philippine Cultural Enrichment Complex, 14301 Nine Eagles Drive

『빛나는 사람들』을 만드는 사람들

발행인 김섭리 목사 편집장 조현숙 집사 편집인 광봉선 집사 박혜영 집사 안지연 자매

발행처 탐파새빛교회 6018 N Highland Ave, Tampa, FL 33604

<https://nlct.org> (813) 239-0213

